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소재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 및 농기계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전남농협 풍년농사 지원 농촌일손돕기 앞장

폐기물 수거 활동·작물 철거 작업 등 환경 개선

영농 보조장비 200대·4억 전달...영농지원 주력

광주전남지역 농협이 '풍년농사 지원 농촌일손돕기 스타트업' 행사를 진행, 농업인 영농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순천시 해룡면 소재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 및 농기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범 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석 순천시장,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전남농협 임직원과 순천 관내 농협 임직원,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본부장 진효인) 임직원, 순천 여성조

직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전달식은 전국 동시에 범 농협 차원으로 진행돼 전남 22개 시·군에서 동시 실시됐다.

행사는 농협이 농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영농지원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는 순서와 해룡면 일대의 고추농가에 대한 농촌 일손돕기 및 수질·대기·폐기물 관리 종합 환경 서비스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노령화로 농촌 곳곳에 방치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적극 수거해 농촌 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전남농협은 이날 발대식에서 관내 농협에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영농보조장비(소형화물자동차, 지게차) 200대를 전달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지원에도 앞장섰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촌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갈수록 영농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남농협에 전달한 영농보조장비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돼 풍년농사를 이루시라는 바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7일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광동 옥동경기장에서 '풍년농사 지원 스타트업'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 관내 범 농협 임직

원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서인덕)와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본부장 진효인), 고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김미원) 회원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의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지고 농촌일손돕기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오지마을 폐비닐수거 3t 이상을 수거했다.

또한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보조 기계장비 4억원 전달식과 함께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생양파하우스 작물철거작업, 멀칭작업과, 옥수수, 대파, 땅콩심기 등 다양한 일손돕기를 펼쳐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일수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농협에 전달한 농기계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남도, 영농철 맞아 농약 안전 관리 강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전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업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작물별로 국내외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응 TF팀(단장 농축산식품국장)을 통해 고흥 농업인 등 취약계층과 작목반별 교육,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농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응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영세농, 고령농 등 취약농가와 작목반을 개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펼치고, 부적합 관정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 위주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PLS 시행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농협, 상호금융 '리스크 아카데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18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전북·광주 농협협 리스크업무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호남권 리스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글로벌 유통성 축소 및 금리인상, 국내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의 정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농·축협의 리스크관리 강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바젤 III와 리스크관리,

글로벌 플랫폼 발전과정과 농·축협에 주는 시사점, 업무관련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한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 인식제고와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축협에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라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상호금융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해양수산기술원, 수산물 생산 4조원 시대 연다

2023년 목표...10대 연구과제 선정 위한 간담회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전남 수산물 생산 4조원 시대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목표를 맞춘 현장 중심의 10대 연구과제 선정 전문가 간담회를 최근 강진지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부 전문가로 대학 교수, 국가연구기관, 수산관련 단체, 수산신지식인 등 8명과 해양수산기술원 품종별 전문관과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 전략 품종에 대한 현재의 생산 및 소득 분석,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시험연구 중장기 로드맵 설정, 산업화 실현에 따른

어업인 소득 향상 효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품종 산업화를 위해 양식기술 개발 등 현장 실용화 연구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연도별 산업화 품종은 2020년까지 참돔, 해물1호(돌돔), 돔, 2021년까지 능성어, 해삼, 갑오징어, 2022년까지 참돔, 해물2호(일반돔), 다시마, 2023년까지 전복, 잇바디(돌김)로 정했다.

전남도해양수산기술원이 육성하기로 한 10대 핵심 품종은 능성어, 참돔, 전복, 꼬막, 해삼, 김, 돔, 갈조류(다시마 미역), 뽕장어, 갑오징어다. 지난 4일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T/F팀 등 자체회의에서 2023년 전남 수산물생산 4조원 달성을 위해 결정된 바 있다.

오광남 해양수산기술원장은 "전남 수산업의 능동적 대처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를 통해 어업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원의 자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농기원·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농식품판매·농업인 미디어능력 강화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최근 전남도 농식품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인 미디어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농작물 홍보 영상제작 지원 ▲인미디어 활용교육 ▲농식품 홍보 판매 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기타 농촌 미디어 향유권 확산을 위한 농촌 지원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성일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이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활성화해 농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두 기관이 힘을 모으자"며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 및 연구자료와 미디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한다면 그 시너지는 매우 클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농협, 여신전문가 협동 상생 교육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17일 광주 지역농협 여신담당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회와 농협간 소통 활성화 및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광주 지역농협 여신전문가 협동 상생 교육'을 개최했다.

'협동 상생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여신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본부 상호금융여

신지원부에서 상호금융대출 규제와 운용 및 서민금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일수 본부장은 "협동 상생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로 건전여신을 추진하고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농협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오피스텔 [급 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응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응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2.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171평)
 -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4. 북구 용봉동 (다기구원룸) (토 80평, 건165평)
 -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